“아이들 손 닿는 모든 콘텐츠가 전법 마중물”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② 김권태 동대부중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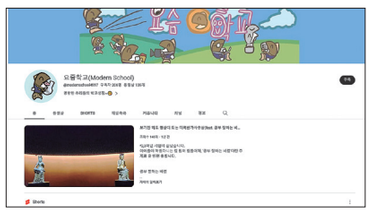
동대부중 ‘콘텐츠 연구회’ 지도
유튜브 채널 ‘요즘학교’에 소개
학생 스스로 시나리오 · 영상제작
“포교 활용 판짜는 게 내 역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 동대부중) 2층 진로활동실은 15명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로 가득 찬다.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소통과 공유를 통해 하나의 콘텐츠가 결과물로 나온다. 동대부중 동아리 ‘콘텐츠 연구회’의 활동 모습이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선발된 김권태 교사는 ‘콘텐츠 연구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교사는 불교신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리는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는 발심으로 지난해 ‘콘텐츠 연구회’ 동아리를 만들었다.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동대부중에서 10년 가까이 교법사 생활을 한 그는 대학원에서 전공한 상담을 활용, 지난해부터 보직을 변경해 진로 과목인 진로상담을 하고 있다. 담당 과목은 변경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그대로다.


유튜브채널 ‘요즘학교’

‘콘텐츠 연구회’를 만들며 유튜브 채널 ‘요즘학교’를 개설한 것도 그가 말하는 확장의 한 방법이다. ‘요즘학교’에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비롯해 게임코딩, 애니메이션 강좌 등 다채로운 영상들이 빼곡하다. 모두 학생들이 기획하고 찍고 편집한 것들이다.

‘콘텐츠 연구회’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요즘학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달의 주제는 ‘불교’다. 3~4명씩 조를 이루어 치열한 논의 끝에 명상과, 불교 전래 등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 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시나리오를 작성, 영상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7월 말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하나의 주제가 마무리된다.

10분 가량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자료수집부터 시나리오, 편집까지 한달여가량이 소요됐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에 학생들에게는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다. 업로드 날이 기대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콘텐츠 연구회’에서 학생들과 김권태 교사가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의 결과물들이 영상 외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있다. 잡지와 자료집, 이모티콘 제작 등이 그것이다. 김 교사는 “콘텐츠의 영역이 무한대이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포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동아리와 채널을 시작했다”면서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 연말에는 자료집과 이모티콘 등으로도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 주제는 ‘광장시장’으로 잡았다. 아이들 스스로 정한 장소다. 김 교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 활동할 수 있게 돕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면서 “광장시장에서 아이들이 먹어보고 싶다는 음식을 먹고 영상도 찍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다 보면 또 다른 활동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 또한 전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건학위에 1000만원 기부

건학위 발전기금으로 활용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사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7월 19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건학위원회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지정학 학교법인 동국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위해 소중한 정재를 내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묵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좋은 곳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좋은 기회로 건학위원회에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동국대와 건학위원회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명 스님 “불광 화합 위해 1080일 기도 진력”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기자간담회
7월 22일, 1080일 참회기도 입재식
청년법회 8월 · 기본교육은 9월 재개
“사심없는 공심으로 불광 세우겠다”

내부 분규로 5년여간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 불광사가 ‘화합’을 염원하는 1080일 기도 돌입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최근 신임 주지로 임명된 동명 스님의 취임으로 불광사가 내홍을 딛고 대표적인 도심포교 사찰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로부터 지난 6월 16일 임명장을 받고 불광사 신임 주지로 취임한 동명 스님은 7월 17일 경내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불광사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동명 스님은 “불광사 내부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기도와 법회, 교육을 중심으로 사찰 고유의 역할에 집중, 내부 화합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신행중심지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

동명 스님은 1080일 동안 진행될 기도에 힘을 쏟다. 1080일 기도에 대해 “참회와 성찰의 백팔일 참회를 열 번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한 동명 스님은 “참회를 통해 불광문도회와 불광가족이 쌓은 업장을 소멸하고 화합하는 사부대중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도 성취를 위해서 ‘원력’ ‘정당성’ ‘한마음’을 강조한 스님은 “오직 신도들이 평안하고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사찰은 신도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곳인만큼 불광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80일 기도는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내 보광당에서 봉행되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5일까지 이어진다. 매일 주지 스님이 함께하는 새벽예불과 사시기도가 이어진다. 새벽기도는 발원문 낭독과 108배 참가, 사시기도에는 1080일 기도 발원문 낭독과 〈금강경〉 독경 등으로 진행된다.

불광사가 대표적인 도심포교 사찰인 만큼 법회운영에도 힘을 쏟는다. 토요법회에 중점을 둬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대중법회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청년법회 ‘금강청년회’를 재개, 8월 5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 재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가정법회, 경찰청 법회, 구치소 법회 등 외부 법회도 활성화해 명실공히 대표적인 도심포교 사찰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게 동명 스님의 목표다.

내부 분규로 인해 한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교육도 9월 2일 다시 시작한다. 3개월 과정의 불교기본교육은 물론, 대승불전연구소장 정운 스님의 〈금강경〉 강의, 심리명상전문가 김미정 박사의 행복해지는 마음습관-기도명상, 불광사 지도법사이자 영화감독 구담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영화 이야기 등이 개설된다. 내년 3월, 불교대학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동명 스님은 “지난 5년간 불광사가 바닥을 쳤다면 이제는 오르막길 오를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사심없이 오직 불광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공심으로 1080기도를 실시 불광 화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바르게 알고 불광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불광 가르침을 일상에서부터 실천해나간다면 원력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도반HC ‘승소’…비건 간편식 판매

식물성 핫도그 등 승소몰서 구매 가능

㈜도반HC 승소(이하 승소)가 7월 7일 친환경 대체식품업체 알티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용 먹거리를 위한 비건 식품 다양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승소는 콩, 밀, 해초, 곤약, 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식물성대체식품 ‘고기 대신 식물성 구운 주먹밥, 식물성 참치’, 당분과 칼로리 걱정이 없는 ‘제로슈가 아이스티’ ‘설탕 대신 스테비아’, ’라이트 칼로리 잼’ 등을 입점, 사찰에서 다양한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지난 5월 출시한 사찰식 만두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사찰과 불자를 위한 제품을 다양화했다”면서 “친환경 대체식품 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사찰에 건강한 비건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비건 식품 구매는 ㈜도반HC 전국 온라인 통신판매인 승소몰(www.seungso.co.kr)에서 가능하다. 02)720-1786

임은호 기자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 현장교육

불교중앙박물관, 7월 12~13일 송광사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찰과 기관의 소장 · 관리자들에 대한 현장교육이 실시됐다.〈사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이 7월 12~13일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2023년도 문화재 다량소장처 소장자 · 관리자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교육주제는 ‘불교조각의 이해 및 보존관리’로, 송광사성보박물관 김태형 학예연구실장이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성보박물관의 견학을 진행했으며, 최선주 중앙대 객원교수(前 국립경주박물관장)가 호남지역의 불교조각에 대한 이론을 강의했다.



신성민 기자

‘국가유산 체재’ 법안 통과…새 체재 정비

‘문화유산 보존 · 활용’ 등 10건
7월 18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문화, 자연, 무형유산 체재로

한국 유 · 무형 문화유산들을 관리 · 보존 ·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가 확립됐다. 이에 따라 일본식 표기였던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문화 · 자연 · 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돼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인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 상의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 ·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며 “관계 전문가, 지자체, 산업계, 청년층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포럼)’를 여러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개 법률 개정내용 중 국가유산체제 전환 내용 외에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을 마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 국제플란트치과그룹 MOU

7월 15일, 남양주 불암사서…회원 및 직원 구강건강 증진

치료비감면 · 생명나눔 확신 협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7월 15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국제플란트치과그룹(원장 정응모)과 지정의료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및 직원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소식지에 국제플란트치과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원사업을 안내하며 회원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국제플란트치과그룹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 및 직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직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꾸준히 대외활동을 펼치면서 여러 기관과 교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응모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과 직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국제플란트치과그룹 정응모 원장,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전보현자 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김남철 부회장, 국제플란트치과그룹 송현기 이사, 오현주 실장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로터스랜턴〉, e-뉴스레터로 만난다

기존 계간서 격월간 발행

20년 넘게 발행해온 조계종 영문 계간지 〈로터스랜턴〉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e-뉴스레터 형식으로 새 단장했다.

〈로터스랜턴〉은 1999년 봄, 1호를 발행하며 조계종단의 공식 영문 계간지로서 한국불교의 해외홍보에 이바지해왔다. 이런 〈로터스랜턴〉이 인쇄물이라는 오프라인의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e-뉴스레터로 불자들을 찾아간다.

e-뉴스레터는 기존 계간지보다 발행 주기를 줄여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구독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되며, 기존 종단소식과 해외교구소식뿐만 아니라 성보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불교문화 소개를 담았다. 여기에 종단에서 제작한 각종 영문동영상 링크를 첨부해 누구나 손쉽게 한국불교를 접할 수 있게 배려했다. 또한 뉴스레터 말미에는 간단한 경구를 실어 독자들이 조금씩 불교교리를 알아가도록 했다.

〈로터스랜턴〉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koreanbuddhism.net/)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메일(lotuslantern@buddhism.or.kr)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